

해외연수보고

세계해사대학(W·M·U) 연수를 마치고 (I)

- 세계해사대학소개편 -

한국어선협회 기술개발부

주임기술원 이 영 섭

필자는 1984년 1월 6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세계해사대학(WMU : The World Maritime University)에서 1년간 수학하였다.

본 어선지를 통하여 관계기관, 관련업체 및 관심있는 여러분에게 필자의 수학내용과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활동 내용과 현재까지 실적 등을 소개하고, 일본에서 현장실습시 체득한 일본의 수산관계, 어선관계 등을 실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코져 한다.

차 례

1. 세계해사대학 소개 (어선 제 22호)
2. 국제해사기구(IMO) 조직과 활동
*(어선 제 23호)
3. 어선 및 수산관련 국제해사기구의 협약
및 활동(어선 제 24호)
4. 일본 현장실습(어선 제 25호)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 국제해사기구(IMO)의 사무국장인 Mr. S. P Srivastava 이다.

이의 분위기를 성숙과 함께

1) 1980.11 :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의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해사훈련기준의 실시에 관한 세미나」 - 스웨덴의 말뫼시에서 개최

- 참가국 : 스웨덴의 국제개발기관 자금지원 개도국 45개국, 7개 선진국

- 해사 과학기술에 관한 세계대학을 말뫼시에 설립할 것을 제안 : 스웨덴 정부 지원이 약속됨.

2) 1980.12 : 제 43차 해상안전위원회(MSC; Maritime Safety Committee)와 제 14차 해상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의 지지를 얻음.

3) 1981.6 : 제 46회 이사회(Council)에서 승인됨.

4) 1981.11 : 제 12회 총회(Assembly)에 상정되어 총회 결의안 A501(XII) - 「스웨덴의 말뫼시에 세계해사대학을 설립」 - 채택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계해사기구 내에 실무진이 구성되어 학교시설, 구성교수 및 재정준비가 신속히 진행되어, 1983년 초에 학생의 모집을 실시하고 스웨덴의 말뫼시에 있는 폐쇄된

1. 세계해사대학(W·M·U)

세계해사대학(WMU)은 대학의 이름이 주는 어감대로 세계적인 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대학의 설립이 그러하고, 대학의 성격이, 학생과 교수의 구성이 그러하녀, 학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이는 조금 이상한 비유인지 몰라도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에 있다. 그러면 세계해사대학에 대하여 하나 하나 소개하여 본다.

가. 대학설립 경위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해사관련 적정 교육기관이 있어야겠다는 요구가 날로 증가하였으며, 이의 필요성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히

해기사양성학교의 건물을 보수하여 1983년 7월 4일에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984년 2월에 제 2기 입학생을 맞이하였으며, 서서히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나. 설 립·목 적

해사관련분야 중견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국제해사 교육연구기관으로 해사안전, 해상오염방지의 향상과 효율적인 해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

1) 개발도상국의 해사교육 및 관련훈련기관의 지원

2) 해사관련기술의 국제적 차이를 해소하며 국제협력을 촉진

3) 해사관련 지도자의 양성 즉 :

- 해사교육기관의 교육자와 연구원,
- 해사교육과정, 자격증 및 검정의 시험관,
- 중견 해사 행정관리인
- 기술적 사무관 및 중견 인사관리관,
- 해난사고 연구관,
- 해사 검사원,
- 조선공학, 해양과학 및 기술자와 관련 훈련 전문가
- 항만 기술관리자 및 관련자

이러한 목적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이면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선진국과 나머지 국가간의 갈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선진국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활동이 개발도상국 내지는 미개발국의 참여의식 결핍이나 당해국의 사회적 여건 불비로 상호보조를 맞추기 어려우니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자는 것이고,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에 대하여는 국제적 이해를 같이 하는 이 기구(IMO)가 몇몇 선진국의 앞선 제도나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협약이 제정되어 이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하니, 이러한 불이익이나 독주를 막기 위하여 본 교육기관을 통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현 협약 및 활동을 적용하고 새로운 협약의 제정이나 차후 활동에는 자국의 현실과 이해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의(異議)를 제기 또는 보완하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다. 교 육 과 정

세계해사대학(WMU)의 교육과정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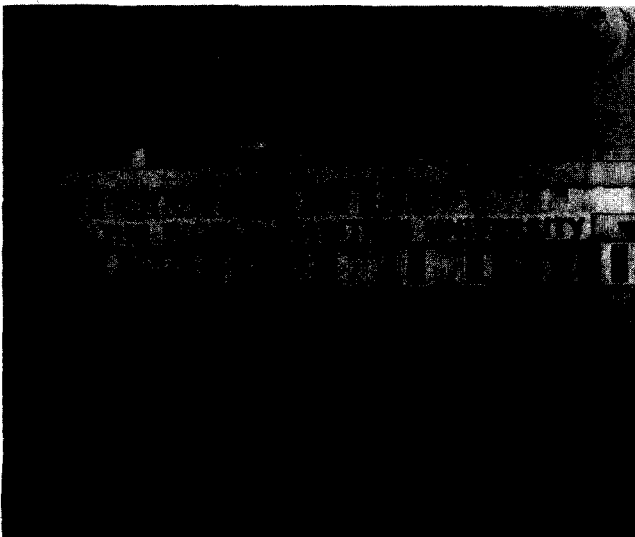
2년과정을 정규과정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주력하고 있으며, 1년과정은 단기과정으로 되어있다.

1) 2년과정(석사학위 수여)

가) 일반해사행정과정(GMA : General Maritime Administration) : 국제해운 관련기술, 항해분야, 조선, 해양생태, 해양오염, 수로, 해사국제협력, 해사법 및 해사행정분야의 포괄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국의 해사정책 결정과 실시 및 보조를 위한 해사행정관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해사안전행정관리(MSA :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 이 과정은 다시 두 과정으로 세분된다. 항해과정(Nautical)과 기관과정(Engineering)으로 되며, 공히 해사관련 국제협약, 규칙 및 수속절차등을 습득하여 해당분야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지식과 이해를 높여 해사검사관으로 자국에 기여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 해사교육과정(MED : Maritime E-



세계해사대학 전경

Ducation) : 이 과정도 나) 항의 해사안전행정 (MSA) 과 마찬가지로 항해과정 (Nautical) 과 기관과정 (Engineering) 으로 되며, 공히 훈련, 자격 및 당적기준협약 (STCW) 및 관련 항해학과 기관학에 관한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해사관련 교육기관의 교관이나 강사의 인적자원 확보와 자국의 교육제도의 수준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라) 해운회사 기술관리자과정 (TMS; Technical Management of Shipping Companies) : 유일하게 민간기업을 위한 사적 (私的) 성격을 띤 학과로서 해사관련 국제협약, 규칙, 인사, 운항관리, 오염방지 및 해사법을 공부하며 이로서 선박회사의 기업적 성격에 부합하고 해사전반업무에 기여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갖은 해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종사할 전문가 양성에 목적이 있다.

2) 1년과정 (수료증 수여)

가) 해사안전행정기술공무원 과정 (TOMS A : Technical Officials Engaged in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 이 과정은 2년과정의 해사안전행정과정 (MSA) 과 유사하나 단기 집중교육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나) 해운회사 기술자과정 (TSSC : Technical Staff of Shipping Companies) : 이 과정은 2년과정의 TMS와 동일성격을 갖고 있다.

3) 단기과정 (4~6주간)

가) 탱커선 안전과정 (Tanker Safety : CO W포함)

나) 화학물질 운반 탱크선과정 (Chemical Tanker)

다) 액화가스 운반선과정 (Liquified Gas Carrier)

라) 위험 화물 운송과정 (Carriage of Packaged Dangerous Cargoes)

마) 해상오염방지 요구 이행과정 (Implementation of MARPOL Requirements)

진술한 과정중에 개교이후 실제로 학생을 모집하여 시행한 것은 2년과정과 1년과정인 해운회사 기술자과정 및 단기과정이나 대학측이나 국제해사기구 (IMO) 는 2년과정에 주안점을 둘 뿐만 아니라 각국에 권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학을 마친 학생은 단기과정을 제외하고는 1년과정 3명뿐이었다.

필자도 이 중의 한명이었으며, 대학측의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필자의 경우 초기 지원한 과정은 해사안전행정이었으나 여기에 지원한 학생이 단 한명으로 학과의 개설을 할 수가 없어 1년과정 지원자를 함께 묶어서 수학케 하였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초기 목적했던 과정과 유사하였으며, 차후에는 우리나라의 어느 분야에서 학생을 파유하드래도 2년과정에 수학케 함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1984년도까지 세계해사대학 (WMU) 에서 수학하고 있던 우리나라 학생은 5명이었다.

그리고 비영어권 국가의 학생을 위하여 어학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은 미국의 Newyork 대학 어학연구소에 의한 교육으로 개학전에 실시하는 집중과정 (6시간/일) 과 학기중에 실시하는 정상과정 (3시간/일) 이 있다.



1984년도 1년과정 수료자 (필자: 중앙)

라. 교수와 학생의 구성

대학의 성격과 경제적인 복합 이유로 단지 9명의 정규 고정교수와 약 80명의 방문교수로서 강의가 행하여 진다.

9명의 고정교수는 :

- C. Arredson씨 : 학장 (스웨덴) 1인의 서독, 영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인디아, 이집트, 프랑스의 각 1인으로 구

성되고, 약 80명의 방문교수는 세계 여러나라의 우수 대학교수, 정부행정가, 기업인(해운내지 관련회사), 현직 또는 전직 국제기구(IMO)종사자등 모두 해사에 관련하는 사람들로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며, 이들 교수는 고정교수를 제외하고는 강의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단지 교통비와 숙식 제공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몇몇 분도 방문교수명단에서볼 수 있었다.

방문교수들의 특성은 그들의 업무에 영향이 없는 시간을 택하기 때문에 학교의 계획이 때로는 교수의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이 취소되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는 예도 있었으나, 대학당국에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강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명단에 오른 80여명의 교수가 꼭 강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강의를 줄 수 있다고 약속한 사람들이다.

학교 설립당시에 계획된 학생의 수는 150명이며, 이는 2년과정 기준으로 한해에 75명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983년도 72명, 1984년도 62명, 합계 134명이였다.

학생을 보내온 국가는 70여개국으로 개발도상국 또는 미개발국이다.

역시 세계적 성격을 띤 만큼,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다.

인종에서는 기본적인 백, 황, 흑에 중간색들까지로 세계인종의 전시장으로 이상상 더한 곳이 있을까 싶다.

지역은 북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다 있으며, 어떤 나라는 그 학생을 만나고나서야 그런 나라가 있음을 알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아직도 식인종이 있다는 나라가 있는 가하면 어떤 나라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에서 온 학생도 있었다.

문화면이나 종교면의 차이는 상호간에 상당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특기 할 만한 것은 종교의식에 따르는 식사 차이로, 공통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식당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이러한 차이들을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대충 살펴보면, 사상(이데올로기), 연령, 직업, 지위, 교육, 등을 들 수 있겠다. 이 모

두에서 한국인 학생들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상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였으나 한가지 가장 큰 어려움은 술이 없는 파티에서 흥에 어울려야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한가지 더 괄목할 만한 사실은 적어도 해운, 조선, 수산분야에서는 한국이 제일 발전한 나라에 속하였으나 교육정도는 거의 모든 학생이 자국에서 대학과정을 마치고 해외 유학경력을 갖고 있으며 직위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데 반해 한국학생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그 나라의 개발수준에 역비례하는 모순이지만 과거의 우리나라 유학생을 생각하여보니 충분히 이해가 갔다.

마. 생활 환경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인 만큼, 여러놀라운 제도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국토가 주는 감각이나, 국민이 주는 감정은 차분하고 성실하며, 어던지 꼬집어내기 힘든 부티와 풍요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가 위치한 말뫼(Malmö)시는 이 나라의 최 남단에 위치하고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과는 여객선으로 한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또한 역사적으로는 덴마크의 일부를 형성했던 사실등으로 이 나라의 전체 분위기와는 약간 다른 성향을 나타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외국인 특히 유색인에 대한 경멸의 태도, 또한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관계로 새로운 이주민의 경계등이다.

어떠하든 이 도시는 한가한 공원같은 인상을 주었으며, 학교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학교와 바로 지척에 있는 조선소(Kockum)의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편의를 대학측이 제공하여 한달의 생활비 미화 150불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실내수영, 정구, 탁구, 보울링, 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다.

아마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식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다.

양식이란 미명의 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끔 기회가 있을 적에는 좋았지만, 막상 식생활 자

제가 그렇고 보니, 삼겹살, 김치, 된장, 내장탕 등이 꿈에도 나타날 지경이었다.

물론 차츰 김치도 개발하고, 온시내를 뒤져서 중국산 라면이며 된장도 구하여 결심들린 사람처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생각하여 보면, 맵고 짠 특성이야 내적, 즉 체내의 감각적 문제이나 요리과정에서 풍기는 구수함이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구수하지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과연 구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도지방에서 개발 발달된 카레의 취각에 불쾌감을 느끼듯 말이다.

기후는 평균기온이 여름은 낮으나 겨울은 따뜻하며, 겨울이 길다.

그리고 최대의 어려움은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한 또한 수질의 차이등으로 한국학생 모두가 한차례식의 가려움증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계속되는 안개나 구름 낀 칙칙한 날씨로 불쾌감과 우울상태를 극복해야 하는 고통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한번쯤 지내볼 만한 곳이다. 단지 오래지 않은 시간에서

바. 학비 및 제 경비

대학 자체의 총예산이나 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본인으로서 알 수 없으나, 1984년도 학생모집 통지서에 나타난 바를 인용하면 스웨덴, 정부지원금 미화 100 만불/년, 국제개발계획(UND

P)기금-미화 80 만불/년, 그외 각국의 지원금으로 되어 있다.

개인에게 분담된 금액은 합계가 미화 3만 6천불/년으로 되고, 그 중 본인의 부담 미화 1만불, 국제개발기금에서 미화 2만 6천불을 개인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학비 속에는 왕복 항공료, 주거비, 식비, 현장실습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매월 용돈명목으로 미화 150 불을 지급받는다.

경제적 수준이 높고, 술과 담배에 대한 엄청난 과세로 인하여 한달에 받는 용돈은 학교와 기숙사를 오가는 생활을 강요하고 한치의 여유도 없다.

물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쓰겠다는 생각도 없었지만, 학업을 계속하던 학생이 아니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왔기에, 가끔 술을 마시고도 싶고, 담배는 끊을 수가 없어 계속 피웠다.

우리나라의 4 흡들이 소주면 두사람이 천원내에서 즐길 수 있는 데, 만오천원을 지불해야 하고, 담배 한갑에 천원에서 천오백원이니 말이다.

때로는 농담같은 진담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학생이지만 학생보다 사람이다”라고.....

소소하고 잡다한 얘기는 끝이 없겠지만, 이제까지 설명으로 대충 해사대학(WMU)에 대한 이해가 되리라 믿으며, 차기호에는 국제해사기구(IMO)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적고저 한다.

간첩선을 찾아 냅시다

북괴는 최근 국제적 비난의 대상인 세습제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따돌리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대남공작을 강경자세로 전환하고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납치와 특히 녹음기 간첩선의 대량 납파등 해상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북괴의 간악하고도 호전적인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어민 여러분께서는 북괴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간첩선을 색출, 신고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